

口述史에 의한 傳統 農家 老主婦의 結婚當時와 現在 住生活 비교

Comparison of Present and Past Traditional Korean Farmhousings.

고 도 임*
Koh, Do Y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traditional Korean farmhousing and Past housing (from 1928~1956) based on a survey of 23 Korean women from Kyongki Province. It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a Comparison of the present and past housing : the size and plan of the house and finishing materials of Anbang(The masters bedroom : ondol) and the kind of furniture, lighting and heating in the Anbang. I was also interested in identifying the socio-demographic and physical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housing, past and present. Bibliographical studies, cultural approaches and field surveys with tape recordings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rmer housing(averag : 54 years ago) was very poor. Most homes lacked sufficient space, furniture and experienced a shortage of fuel. The most decisive difference from the present was the large family size. It would be beneficial to make a similar study in both the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of Korea.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一般的으로 각 나라의 傳統의 住宅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自然環境의 여건과 社會文化的 상황에 적응 또는 순응하면서 그 時代 人們의 必要와 價値觀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택과 農家에 대한 研究는

최근에 상당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 마을과 농가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조재순 : 1978, 김광언 : 1985, 최찬환 : 1986, 홍형욱 : 1982, 1986, 조성기 : 1991, 이원 : 1987, 유옥순 : 1988, 이동락 : 1988, 윤정숙 : 1989, 윤복자 : 1990, 강영환 : 1991, 1993, 한필원 : 1991, 안병욱 : 1992, 김홍식 : 1992, 이길순 : 1992, 김성우외 : 1993, 이해준 : 1994).

이 논문들은 주로 공간계획 및 개량, 취락구조 등 물리적, 구조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또

*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한 韓國 農家의 住居史나 住生活의 形態를 生活 文化的 側面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상당히 있으나 대부분 그 집속에 사는 사람을 직접 포함시키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적, 기념비적 건물을 제외한 모든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집을 연구할 때 집속에 사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인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만 더 바람직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행해진 농가 연구의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의 것인데 이는 그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활발히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고(최찬환 : 1986, 한필원 : 1987), 또한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기 시작하여 농가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믿어진다. 여하튼 60년대 이전에는 우리의 전통 농가 연구가 대단히 미약했던 시기이다. 특히 가난한 농가와 그 주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기록에 남긴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정시대부터 50년대까지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 농가의 농부와 주부들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설사 글을 쓸 줄 알았더라도 생활에 쫓겨나서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자기 집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민의 인구 비율이 56~58%로 전인구의 절반이 넘었으나¹⁾ 그 중 대다수가 글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나 住生活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세히 서술해 놓은 자료나 문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 읍, 면, 군, 도단위의 역사서나 각종 행정 기록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배자, 권력자, 지식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지배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은 아니다. 특히 농가나 농민에 대해서 쓴 역사(History)가 있더라도 이는 모두 남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지 여성의 삶의 역사(Herstory)는 아닌 것이다.

1) 농림통계연보, 1969년.

전경배, "농촌 주택의 건축계획적인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38), 1970, p40에서 재인용.

이에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口述史는 보통 농가 노주부들의 과거 생활을 풀뿌리로부터의역사(from the bottom up)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윤택림, 1994). 비록 이 구술사가 과거 농가 주부들의 삶 전체를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하더라도, 노주부들의 구술사를 통해서 그 시대 삶의 이야기를, 그것도 다수 女性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농촌에는 해방전부터 6·25 직후까지 참혹했던 시절에 젊은 주부로 1인 3役의 고된 삶을 영위해온 老主婦들이 상당수 생존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전통 농가와 이 노주부들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특히 한국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 되기 전 즉 1930~1950년대까지 약 30년간의 전통 농가의 住生活를 老主婦들의 口述史를 통해서 찾아내어 현재의 주생활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30~1950년대의 농가의 평면도와 현재 사는 집의 평면도를 비교한다.
- 2) 1930~1950년대의 농가 안채와 안방, 마루의 칸수와 바닥 마감재를 현재의 것과 비교한다.
- 3) 1930~1950년대까지의 농가 안방의 가구와 소품들을 찾아내어 현재의 것과 비교한다.
- 4) 안방과 부엌의 조명과 딸감의 종류를 현재의 것과 비교한다.
- 5) 농가 노주부의 과거 住居條件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을 밝혀 낸다.

2. 研究의 範圍와 限界

1) 조사지역의 선택

관련 문헌을 통해 연구해 본 결과(신영훈 : 1969, 주남철 : 1987, 조재순 : 1978, 이문웅 : 1978, 한필원 : 1987, 최찬환 : 1987, 고도임 : 1991, 김홍식 : 1992, 강영환 : 1993) 중부지방 전통 주택의 일반적인 평면 배치 유형은 'ㄱ'자 혹은 'ㄴ'자형이 주류이고, 이 'ㄱ'자의 안채와 中庭을 가운데 두고 사랑채와 부속사들이 있는 중정식 집이었다. 이런 유형의 농

가가 많이 남아 있는 곳 중에 한 지역이 바로 京畿道 平澤郡 梧城面 安化里와 梁橋里이다. 이 마을은 필자가 1991년에 이미 1차 조사를 한 곳이고 또 老主婦(63세 이상)들이 많아서 이곳을 구술사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응답자의 범위와 한계

현재 농촌에는 고령화 현상으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대화 능력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았으며 또 이 고을에서 반평생 이상을 거주하고 적어도 45년전 자신의 결혼 초기의 생활을 기억하는 여성 노인을 선택하였다. 또한 응답자와 가구주는 거의 한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켰다.

II. 研究方法

1. 口述史 調査方法 및 節次

본 논문의 조사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우선 1991년과 1993년에 필자가 현지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하여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본 조사를 하였다. 즉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안화리와 양교리(2리, 4리, 5리, 6리)의 전통농가 중 110가구가 안방 중심으로 정밀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63세 이상의 노주부로 적어도 45년 이상을 이 마을에서 거주하고 기억력이 있으며 대화가 가능한 분 30명을 구술사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보조원들에게 사전교육을 두차례 실시하였고 특히 구조화된 질문지로 직접 면담하여 그 답을 쓰는 요령과 노주부가 과거 결혼했을 당시의 주거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여 그 분의 口述을 녹음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조사와 녹음된 테이프를 한 셀트로 하여 구술사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조사대상가구의 개요"로 만들었는데 23가구만이 본 논문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2. 調査資料 處理 및 分析

모든 조사자료는 가능한한 개요, 도표, 수표, 도면 및 사진등으로 제시하고 통계가 가능

한 것, 즉 옛날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사항과 안채와 안방의 규모, 구조, 마감재와 안방의 가구와 소품, 마루와 지붕의 재료등은 단순 빈도 및 백분율, 평균등을 산출하였다.

III. 調査 結果 및 論議

1. 調査農家の 社會人口學的 考察

1) 老主婦의 현재 연령과 결혼 연령 및 배우자 유무

口述史 對象者 노인의 최연소 연령은 63세이고 최고령은 84세이다. 두분이 84세인데 두분 다 건강한 상태여서 멀리 가서 사는 아들이나 딸네집 방문을 종종하신다. <표 1>에서 보듯이 60대 노인이 10명(43.48%)이고 70대는 7명, 80대는 6명으로 전체 평균 연령은 72.4세이다.

노주부들의 결혼연령은 10대가 15명(65.22%)으로 다수이고 20대가 8명(34.78%)이다. 이들중 29세에 결혼한 노인은 뒤늦게 재혼한 경우여서 예외라 할 수 있다.

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볼 때 최고의 결혼 연령은 23세이고 최연소 결혼 연령은 15세이며 이 그룹의 평균은 18.5세이다. 최재석(1975)의 자료에 따르면 1938년에 전국의 부인 초혼 연령은 20.17세이고 市部의 초혼 연령은 21.96세이다. 두 자료의 양과 질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하기 어려우나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1995, P. 224)에서 군부의 여자 초혼 연령이 25.2세로 나타나 본 조사의 초혼 연령이 6.7세나 적다. 그리고 이 노주부들 중 배우자가 있는 분이 11분(47.83%)이고 없는 분이 12분(52.17%)이다.

2) 결혼 당시의 시부모 동거 유무와 가족수 및 학력

노주부들의 결혼 당시에는 대다수의 시부모가 생존(69.57%)해 있었으며 2가구에서 시아버지만 계셨고 3가구에서 시어머니만 계셨다. 시부모가 별세하였거나 친정아버지를 뒤흔 집이 각각 한집씩 있었다. 이로써 이 노주부들의 다수가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시부모를 뒤흔리고 고생했으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1> 노주부 결혼 당시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3				
항 목		분 포	빈 도	%	항 목		빈 도	%
노주부의 현재 연령 (평균 : 72.4세)	60대		10	43.48	결혼 당시 가족 수 (평균 : 7.17명)	5인 이내	6	26.1
	70대		7	30.43		6~7인	7	30.4
	80대		6	26.09		8명 이상	10	43.5
	계		23	100.00		계	23	100.0
노주부의 결혼 연령 (평균 : 18.5세)	10대		15	65.22	노주부의 학 력	무 학	7	30.4
	20대		8	34.78		국문 해독	10	43.5
계		23	100.00	국교 중퇴		3	13.0	
배우자 유 무	유		11	47.83		국 졸	2	8.7
	무		12	52.17		중 졸	1	4.3
	계		23	100.00		계	23	99.9
결혼 당시 시부모 동거 유무	시부모		16	69.57	결혼 당시의 경제 상황	국민한 편	5	21.8
	시부		2	8.70		가난한 편	9	39.1
	시모		3	13.04		쌀 평균 수확 1년 : 11.4 가마	보통 정도	6
	모두 별세		1	4.35	잠곡 평균 수확 1년 : 3.17 가마	여유있는 편	3	13.0
	친정 부친		1	4.35		계	23	100.0
	계		23	100.01				

노주부들이 결혼한 당시의 가족수는 <표 1>에서 보듯이 8명 이상이 10가구(43.5%)로 제일 많다. 최고로 많은 가족수가 16명, 최소가 2명으로 그 차이가 크다. 전체 평균 7.17명으로 최재석(1975)의 연구에서 전국 郡部 평균인 5.25명보다 무려 1.92명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필자 조사(1991)에서는 평균 동거 가족이 4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50~60년 전보다 평균 3명이나 가족수가 줄었는데 이는 농가의 인구 감소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노주부들의 학력은 중졸이 단 1명으로 그 당시 시골에서는 최고 인텔리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졸도 2명이고 국교 중퇴가 3명, 국문 해독이 10명(43.5%)으로 가장 빈도가 높다. 즉 1945년 전후의 한국 농촌 여성 중에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는데 그때는 경제 사정도 어려웠고 지금처럼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도 아니었다. 그래도 다

행히 배우기 쉬운 한글(당시는 언문이라고 했음)을 집에서 배워 소위 “국문 해독”자가 된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3) 노주부의 결혼당시의 경제상황

노주부들의 결혼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평균 54년 전의 가정의 모든 사정을 잘 기억할 수는 없겠으나 그 당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노주부의 결혼 초기의 경제 사정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국민한 편(21.8%)과 가난한 편(39.1%)이 무려 60.9%나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확철만 지나면 겨울에는 하루 두끼를 보리죽이나 서석(조)죽으로 때우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조사대상 가구 중 3가구(13.0%)만이 식량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응답자 가구의 일년 평균 쌀 수확량은 11.4가마, 잠곡은 3.17가마였는데 가구별로 그

차이가 심하다. 즉 가구당 쌀 수확량은 최소 0가마에서 최대 40가마까지 있었으니 소위 말하는 큰 부자집은 없었다.

2. 口述史에 의한 옛 農家の 住生活와 現在의 것과의 비교

옛 農家와 합은 老主婦들이 결혼했을 때, 정확히 1928년~1956년까지를 말하는데 평균 54년 전이다. 그 때는 국토가 분단은 되지 않았으나 日帝 治下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고 특히 농민들은 애써 지은 곡식들을 공출로 빼앗겨서 굶주리던 시절이기도 하다. 식량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住宅事情이 좋을 리 없었다.

1) 옛 농가의 평면 배치, 칸수 및 방 수와 현재 농가와 비교

옛 농가의 평면배치는 <표 2>에서 보듯이 4

가지 형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ㄱ'자형으로 9가구(39.13%)이고, 그 다음이 'ㄴ'자형으로 8가구(34.78%)이다. 세번째가 'ㅡ'자형으로 5가구이고, 'ㄷ'자형은 단 1가구이다. 통계 자료가 적어서 대형 자료와 비교하기에 좀 무리가 있으나 문화공보부가 실시한 조사보고서(김광연 : 1985)의 주생활편의 주택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본 조사에서는 ㅁ자형(일명 짜리집)이 단 한채도 없는 것이 다를 뿐이다.

<도표 1>에서 'ㅡ'자형 배치가 5가구나 되던 것이 현재는 단 1가구도 남지 않았고, 'ㄴ'자형은 8가구에서 6가구로 줄어든 반면, 'ㄱ'자형은 9가구(39.13%)에서 10가구로 다소 증가하고, 가장 규모가 큰 'ㄷ'자형은 1가구에서 7가구(30.4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서 농가의 주거 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옛 농가의 일반적 사항

N=23

항목		분포		빈도	%	항목		분포		빈도	%
평면 배치	'ㅡ' 자형			5	21.74	안채와 사랑채의 방 수	안채	2	21	91.30	
	'ㄴ' 자형			8	34.78		사랑채	3	2	8.70	
	'ㄷ' 자형			9	39.13		계		23	100.00	
	'ㄱ' 자형			1	4.35		사	1	6	26.10	
	계			23	100.00		랑	2	3	13.10	
안채와 사랑채의 칸 수 (안채 평균 : 4.63 칸)	안채	칸수	빈도			(총 평균 : 2.6개)	채	0	14	60.80	
		3	4	17.4			계		23	100.00	
		3.5	2	8.7			안방의 칸 수	1.0 칸	5	21.74	
		4	1	4.3			1.5 칸	11	47.83		
		4.5	3	13.0			2.0 칸	7	30.43		
		5	8	34.8			계		23	100.00	
	6	5	21.8		안방의 칸 수 (평균 : 1.54칸)	2.0 칸	7	30.43			
계	23	100.0		계		23	100.00				
(총 평균 6.2 칸)	사랑채	칸수	빈도			마루 바닥 재료	흙(붕당)	10	43.48		
		3	4	17.4			나무마루	10	43.48		
		4	2	8.7			뿔 마루	2	8.70		
		5	2	8.7			없음	1	4.35		
		6	1	4.4			계		23	100.01	
	무	14	60.8		계			23	100.01		
계	23	100.0									

N = 23

시기 원형터	과거의 집 평면도	시기 원형터	현재의 집 평면도 (고도임, 1994)
'ㄱ' 자형 (5가구)		'ㄱ' 자형 (07가구)	
'ㄱ' 자형 (8가구)		'ㄱ' 자형 (67가구)	
'ㄱ' 자형 (97가구)		'ㄱ' 자형 (107가구)	
'ㄱ' 자형 (17가구)		'ㄱ' 자형 (77가구)	

□ - 안방 ■ - 마루 ▣ - 욕탕 ▢ - 건넌방 □ - 부엌 □ - 화장실 □ - 대문간 □ - 외양간 □ - 나무장 □ - 광(곳간) □ - 옷방

* 과거 : 평균 53년 전후를 말함.

<도표 1> 구슬사에 의한 농가 평면도의 변화

옛날 농가 안채의 칸수는 5칸의 빈도가 8가구(34.8%) 가장 많다. 문자 그대로 초가 3칸과 3.5칸도 6가구(26.1%)이고 초가 4칸과 4.5칸이 4가구(17.3%)로 이 두 작은 집의 빈도가 10가구(43.48%)나 된다. 이로써 신영훈(1975)이 말한 1897년도의 호구 조사시 초가 삼칸은 실제에 있어서 초가 3칸이 아니라 초가 8칸이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그 당시의 농가 규모에 일반화시킨 점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 두 자료간에 지역적 차이와 약 50년의 간격이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제정시대 보다 조선조 말기에 농가 규모가 더 크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여하간 우리 노주부들이 결혼해서 살던 시기의 안채 평균은 4.63칸인데, 그 당시 가족평균 수 7.17명으로 나누면 겨우 0.65칸이 1인당 공간이다. 사랑채까지 포함한 총 평균 칸수는 6.2칸인데 이 칸수도 현재 같은 지역의 안채 칸수 6.5칸(고도임; 1994)보다 적은 것이다.

다음은 방 수(〈표 2〉)인데 안채에는 보통 2개의 방이 있다. 즉 안방과 전남방이 있는 집이 21가구(91.30%)로 절대 다수이고, 사랑채에 사랑방이 있는 집이 9가구(39.2%)가 있었다. 방수의 전체 평균은 2.6개이나 어떤 집은 방 2개에 시부모, 신혼부부, 시누이, 시동생이 함께 살게 되어 방 부족 현상을 겪으며 고생을 하며 살았다.

안방의 칸 수도 1.5칸이 11가구(47.83%)로 약 절반이 된다. 전체 평균 1.54칸이므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2.66평으로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역시 〈표 2〉에서 보면 50~60년 전의 농가는 흙방당과 나무마루가 각각 10가구(43.48%)로 반반씩이다. 이 흙방당으로 쓰이던 것이 현재는 한 집만 흙 위에 비닐을 깔았고, 모두가 나무 마루로 되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같은 칸수의 집이라도 50~60년 전보다 住生活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안방 내부의 마감재와 조명

안방의 조명은 100%가 모두 등잔불이었다. 이 동네도 1960년대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여러 해를 거쳐서 모두 전기불로 교체되었다.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안방 바닥의 마감재는 참으로 다양하였다. 현재 비닐장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옛날에는 왕골자리가 19가구(82.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장판을 한 집은 단 1가구였다. 종이가 귀하고 비싼 시절이어서 벽에 벽지를 바른 집이 단 1가구이고, 회종이가 8가구(34.78%), 흙마감이 13가구(56.52%)로 절반이 넘는다. 천정도 석가래가 보이는 흙마감이 16가구(69.57%)나 되고 벽지를 사용한 집은 4가구(17.39%)뿐이다.

3) 옛 농가의 안방 가구와 소품

옛날 서민 농가의 가구는 필자의 예상보다 더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방의 필수 품목인 등잔과 요강만 모든 집에 비치되었고,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반질그릇도 15가구(65.22%)만 있었으며 빗집도 15가구에만 있었다. 다듬이돌이 21가구(91.30%), 다듬이기구가 14가구(60.87%), 또한 경대도 14가구(60.87%)에만 있었다. 새

〈표 3〉 안방의 마감재

N=23

구분	분포		구분	벽 마감		천정 마감			
	빈도	%		빈도	%	빈도	%		
안방	왕골 자리	19	82.61	벽지	1	4.35	4	17.39	
	벚짚 자리	1	4.35		회종이	8	34.78	3	13.04
	장판	1	4.35			백노지	1	4.35	0
바닥	회종이	1	4.35	흙마감	13	56.52	16	69.57	
	돛자리	1	4.35						
계	23	100.01	계	23	100.00	23	100.00		

택이 있는 집에 경대가 없었다는 것은 결혼 혼수품으로 옷 몇가지 밖에 해울 수 없었던 사람이 40%나 된다는 뜻이다. 경대보다 조금 더 큰 품목인 캐, 반다지, 합도 21.74%~30.43%로 겨우 5,6,7가구에만 있었던 품목이다. 그리고 안방 마님의 위상을 나타낼 정도로 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장이 9가구, 농이 7가구에만 있었으니 나머지 60~70%의 가정주부는 그들의 의복을 주로 반다지나 합, 대고리, 횃대 등에 걸어 보관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이렇듯 빈약한 가구와 소품의 가구당 전체 평균은 8.2개이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약 50년 후에 실시된 자료(고도임; 1991)에서는 전통 가구는 평균 4.5개로 줄었으나 현대식 가구와 소품의 평균은 7.2개로 거의 모든 집에 옷장, 이불장이 있으며, TV세트와 전화기가 가설되어서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4) 부엌의 조명과 땀감

옛날 부엌의 조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2집(8.7%)만이 남포불이었고, 21가구(91.30%)는 등잔불이었다. 부엌의 연료는 <도표 2>에서 보듯이 다양하나 그 모두가 취사와 난방 겸용이었다. 조사 마을인 양교리는 산이 가까워서 솔

가지를 땀 집이 15가구(25.86%)이고, 안화리는 버농사가 많아서 짚을 땀 집이 15가구로 이 2가지 땀감을 합하면 50%가 넘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왕겨로 10가구(17.25%)인데 이 왕겨를 땀 때는 힘이 더 든다. 즉 풍구라는 바람나는 기계를 한 손으로 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왕겨를 한웅큼씩 계속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이다. 왕겨 다음으로 많은 땀감이 장작으로 9가구(15.52%)이나 1년 내내 장작을 땀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집에서 적어도 두 세 가지(예:짚,왕겨,장작)의 연료를 땀에 따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농가의 주부들은 식량도 부족해서 고생했지만 겨울이나 봄에 연료가 부족해서, 손수면 뉘갓(산)까지 가서 나무도 하고 고주박(주: 나무뿌리 캐기)도 해서 이거나 지고 오느라고 고생을 한 분들이다. 그러나 현재는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난방의 주종을 이루고 나무와 연탄을 겸용하는 집과 나무만 때는 집도 소수 있으며(고도임:1994), 취사용으로는 LPG 가스를 많이 쓰고 있다.

<표 4> 옛날 농가의 가구와 소품

N=23

구분	분포			구분	분포		
	빈도	%			빈도	%	
장	9	39.13		농	7	30.43	
의거리	1	4.35		버선장	1	4.35	
반다지	6	26.09		합	7	30.43	
캐	5	21.74		경대	14	60.87	
빋집	15	65.22		문갑	-	-	
탁자	-	-		고비	-	-	
반질그릇	15	65.22		횃대	18	78.26	
다듬이 돌	21	91.30		다듬이 기구	14	60.87	
대고리	4	17.39		등잔	23	100.00	
모기장	1	4.35		발	-	-	
요강	23	100.00		사진틀	3	13.04	
액자나 족자	-	-		병풍	2	8.70	
계	100	-		계	89	-	

(%)

재료	빈도					
	0	5	10	15	20	
보리짚	■					(3.45)
짚	■■■■■					(25.86)
짚뿌리	■					(1.72)
솔가지	■■■■■■■■■■■					(25.86)
솔방울	■					(1.72)
나뭇가지	■■■■					(6.9)
장작	■■■■■■■■■					(15.52)
왕겨	■■■■■■■■■					(17.25)
수수깡	■					(1.72)

<도표 2> 옛날 부엌의 땀감

5) 노주부의 과거 고생살이

할머니들과 면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이 분들이 모두 고생과 회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빈한해서 늘 양식 걱정, 땀나무 걱정, 옷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던 분들도 많았고, 양식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더라도 대신 시부모 공경, 절구질, 방아질, 흰 무명과 광목 빨래 문제, 세 끼의 식사 준비와 들일까지 걸쳐서, 등뼈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해도 항상 일이 밀려 있었던 문제 등으로 모두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 분들이 50~60년 전을 회상하시고 그 때 가장 고생스럽게 사신 것을 우선 순위로 응답해 주신 것을 점수화 하여 계산한 것이 <도표 3>이다.

노주부들이 겪은 고생 중에 배꼽은 고생이 114점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먼 곳에 가서 물 길어다 쓰는 문제로 101점이고, 세번째로 많은 점수가 92점으로 집안일(취사 작업, 육아, 청소, 빨래 등)인데 들일이 바쁠 때는 주부도 밭에 나가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그 사이에 점심과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해야만 했다. 여기에 양교 6리 김운학 할머니(Y67, 호주 정금화의 母)의 고생살이 한 대목을 인용한다.

“……옛날에는 (출산 후) 3일만 쉬고 일하고, 가마치고, 물 길어다 밥해 먹고 다하지. ……디덜방아, 연자방아, 절구질 다 많이 했어요. 물은, 낮에 일하고 밤에 길어 오고, ……빨래도 집에서 못 했지. 물이 없으니……”

김운학 할머니는 현재 주거생활은 여러 가지로 편리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3. 평면 배치 유형에 따른 옛 농가의 사례

1) 'ㄱ'자형의 농가 사례

조사대상 농가 중 제일 많은 평면 형태가 'ㄱ'형으로 9가구(39.13%)이다.

이 평면 형태의 대표로 안화리의 정언년 할머니(호주 안완군의 母)댁을 선정하였다. 정할머니는 현재 83세이시고 15살(1928년)에 결혼하셔서 이 댁에 사시는데 결혼 당시의 집 <도면 1>은 안채 5.5칸에 사랑채 3칸의 'ㄱ'자형의 초가집으로 그리 가난해 보이지 않았으나 이 할머니도 보릿 고개를 어렵게 겪으신 분이다.

이 옛날집은 안마당 옆에 부속사로 광과 공간이 달린 번듯한 집이었다. 마른 나무로 울타리를 둘렀으며 나무 마루도 2칸이었다. 안방 바닥은 왕골자리였고, 벽과 천정은 회종이를 발랐다. 조명은 등잔불이었고, 부엌의 땀감은 주로 벗짚이고 때로 나무와 왕겨도 뻤다.

안방의 가구는 장, 농, 반다지, 함, 경대, 빗집, 반질그릇, 다듬이 돌과 다듬이 기구, 등잔, 요강등 비교적 많이 갖고 있는 집이었다.

<도면 2>는 현재 정언년 할머니의 집인데 1951년에 건축되었다. 목구조의 'ㄱ'자 집으로 새마을 사업 때 초가집이 슬레이트로 개량되고 1985년에 부엌과 창고를 증축하였다. 1970년에 방바닥이 재래식 장관에서 비닐 장관지로, 벽은 벽지로, 천장은 베니아판을 벽지로 마감하였다. 이 댁은 아직도 재래식 아궁이에 불을 때서 안방의 난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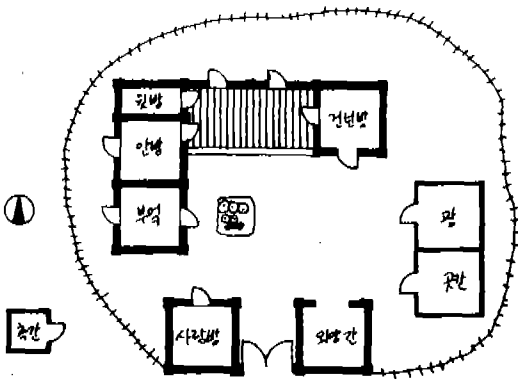
안방의 전통 가구는 농, 경대, 문갑, 탁자, 병풍이 있으며, 현대 가구로는 옷장, 이불장, 서랍장, T.V세트, 화장대, 진열장이 있다. <사진 1>은 사랑채 앞에서 '95년에 찍은 정언년 할머니이다.

2) 'ㄱ'자형의 농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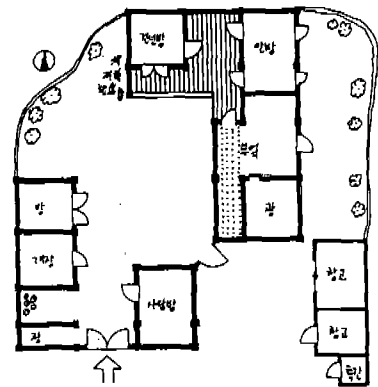
<표 3>에서 보듯이 구술사 채취 가구 중 평면 배치가 'ㄱ'자 혹은 'ㄱ'자형이 8가구(34.78%)이다. 여기에 속하는 가구 중 양교 6리 이상성 할머니(호주 정종화의 母)의 옛 집을 선정하였다. 이상성 할머니는 현재 84세로 17살(1929년)에 결혼했다. 당시 시부모님이 생존했고 5남

구 분	총점수	0	30	60	90	120
	1. 식량 부족 문제	██				
2. 땀감 부족 문제	██					(66)
3. 흰 옷 빨래 문제	██					(51)
4. 물 길는 문제	██					(101)
5. 신혼 부부방이 없는 문제	██					(38)
6. 식구가 많아서 일이 고된 문제	██					(77)
7. 집안일과 들일이 많은 문제	██					(92)
8. 기타(남편의 외도)	██					(14)

<도표 3> 노주부들의 과거 고생살이



<도면 1> 정언년 할머니댁 평면도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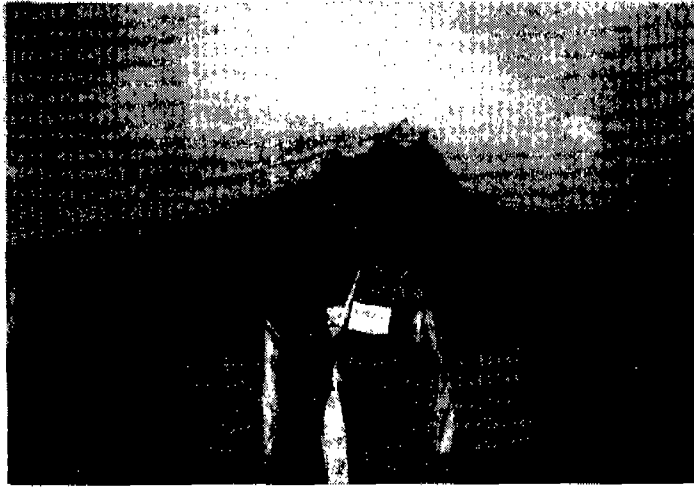
<도면 2> 정언년 할머니댁 평면도 (호주 : 안완균, 1995)

매의 맘머느리가 되었는데, 1년 총수입은 쌀 7가마에 잡곡 5가마로 8식구가 살기에는 반년 양식도 못되어서 배고픈 고생이 많았다.

이장성 할머니가 처음 결혼해서 사신 집은 <도면 3>에서 보듯이 'ㄱ'자형 4칸 초가집으로서상방(안방), 건넌방, 부엌, 흥분당이 각각 1칸씩이여서 방이 모자랐다. 집 주위에 수수깁으

로 울타리를 두루고 찌리문이 있었고, 부속사로 외양간과 잣간이 있었다. 안방에는 등잔불을 쓰고 부엌에서는 관술불을 켰으며 안방 바닥은 왕골자리를 깔고, 벽과 천정은 흙마감이었다. 여기에 이장성씨의 구슬사 12면 중 한대목을 인용한다.

".....그래서 옛날에 심청전 책을 보면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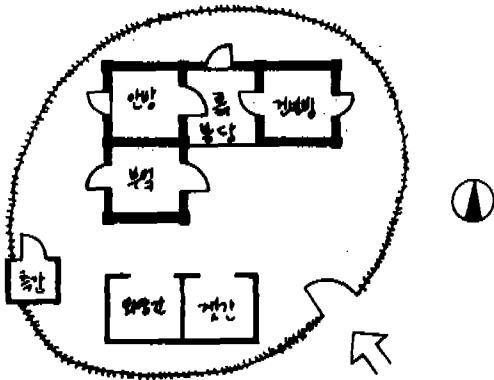
〈사진 1〉 정언년 할머니 댁과 할머니(1995)

(별나게) 울구 어찌구 그랜다구 하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하다구. 바닥이 흙바닥인데 회부대를 발르고 왕골자리를 매 가지고서는 거기다 깔구서 애기도 낱구 사는거지 뭐가 있으유? 지금은 참 좋은 시상이지. 광솔 따다가 부엌에는 그 광솔불 켜 놓고 쓰고, 방안에는 등잔불 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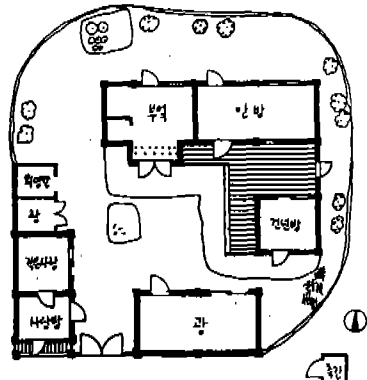
안방의 가구로는 퀘짜 1개, 빗집, 횃대, 다듬이 돌과 기구, 반질그릇, 요강이 있었다. 안방의 펠감으로는 장작, 산나무, 짚이나 검불 등을 땀다.

〈도면 4〉는 이장성씨가 현재 거주하는 집이다. 이 집은 1921년 안채만 4칸으로 지은 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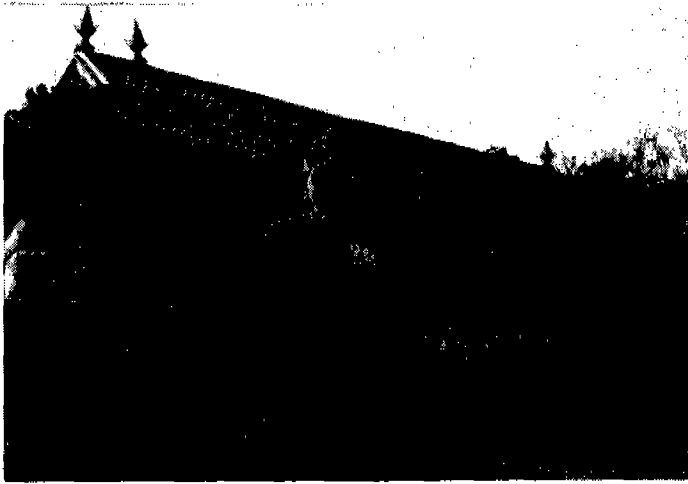
데 현재는 6칸으로 증축됐고, 사랑채도 5칸이나 된다. 증축할 때 안방을 2칸으로 만들고, 쪽마루 1칸에 뒷마루까지 만들었다. 현재 안방의 난방은 구들장 위에 연탄보일러의 파이프를 설치한 이중 난방이며, 안방 바닥은 비닐장판이고 벽과 천정은 모두 벽지마감이고, 1960년경부터 전기불을 켜다. 안방에 있는 옛날 것으로는 경대, 반질그릇, 모기장, 요강이 있으며 현대식 가구와 소품으로는 옷장, 이불장, T.V세트, 옷걸이, 벽시계, 전화가 있다. 현재 이장성씨는 건강하시고 신기리(양교 6리)의 산 증인이다. 〈사진 2〉는 사랑채앞에서 95년에 찍은 이장성 할머니이시다.



〈도면 3〉 이장성 할머니 댁 평면도(1927)



〈도면 4〉 이장성 할머니 댁 평면도 (호주 : 정종화, 1995)



〈사진 2〉 이장성 할머니 댁과 할머니(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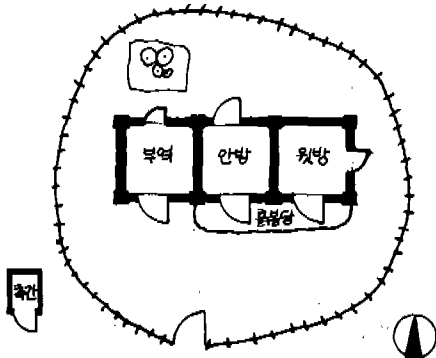
3) '一'자형의 농가 사례

조사대상 농가 중 '一'자형은 5가구(21.74%)였는데 모두 다 초가 3칸 아니면 초가 3.5칸으로 가장 가난한 주거형이다. 이 중 안화리 이순희 할머니(호주 백서현의 母)댁을 선정하였다. 이씨 할머니는 현재 80세로 17세(1932년)에 이 가난한 백씨 댁으로 시집와서 갖은 고생을 다 겪으시고 사셨으나 지금도 상당히 정정하시다. 이씨 할머니가 결혼해서 산 집은 초가 3칸인데 남의 집 옷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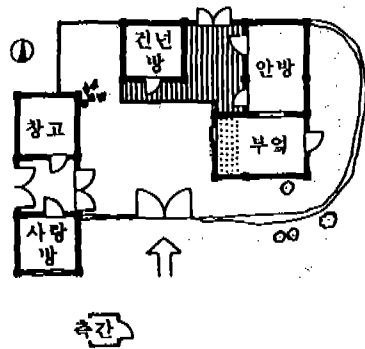
시부모도, 시동생도 없이 단둘이서 풀팔이로 시작한 인생살이었다. 즉 본 조사 23가구 중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도면 5〉과 같이 안방, 윗방, 부엌만 있는 초가 3칸이고, 마른 나무 울타리에 싸리문이 있었다. 방바닥은 왕골자리였

고, 벽과 천정은 모두 흙마감이었다. 방에는 등잔불을 켜고, 가구로는 농, 빗집, 요강이 전부이고, 땀감은 짚뿌리, 왕겨, 나무 등이었다.

〈도면 6〉은 현재 이순희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1940년에 안채 4칸, 사랑채 3칸으로 지었다. 현재 안방의 난방은 재래식 구들 위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한 이중 난방식이다. 안방 바닥은 71년에 돛자리에서 비닐 장판으로, 또 흙벽과 흙천정은 벽지로 바뀌었다. 안방의 조명은 65년부터 전기불을 켜며, 원래 있던 전통가구 몇점은 없어지고 T.V세트, 화장대, 다듬이기구, 병풍, 서류함, 돛자리, 요강, 사진틀, 전화, 성화, 십자가 등이 있다. 〈사진 3〉은 자기 집 앞에서 찍은 이순희 할머니이시다.



〈도면 5〉 이순희 할머니 댁 평면도(1932)



〈도면 6〉 이순희 할머니 댁 평면도 (호주 : 백서현, 1995)



〈사진3〉 이순희 할머니 댁과 할머니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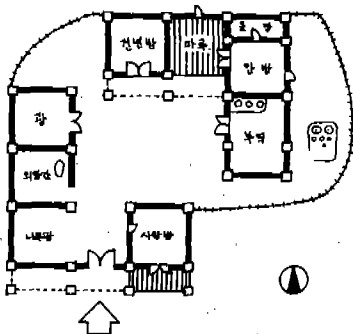
4) 'ㄷ' 자형의 농가 사례

구술사 채취 가구(23가구) 중 이 'ㄷ' 자형은 단 한 집으로 안화리의 정귀녀(66세) 할머니(호주 조건호의 처)댁이다. <도면 7>에서 보듯이 안채 5칸, 사랑채 5칸의 중농형 초가집이다. 안방과 부엌이 각각 1.5칸이고, 마루(쪽마루)와 건넌방이 각각 1칸씩이다. 사랑채에는 사랑방, 대문간, 나무광, 외양간, 광등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1년 쌀 수확이 40가마로 조사대상가구 중 가장 여유있는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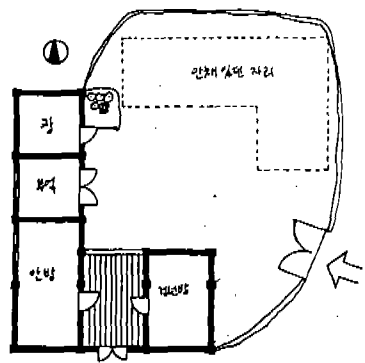
이런 집도 안방 바닥은 왕골자리를 깔았으며, 벽은 백노지, 천정은 반자를 하였다. 안방과 부엌을 각각 등잔불로 밝혔고, 뽕감은 벗짚과 장작이었다.

안방의 가구로는 장, 반다지, 함, 빗집, 반질그릇, 횃대, 다듬이 돌과 다듬이 기구, 등잔, 요강, 사진들이었다. 이렇듯 비교적 갖추고 사는 농가였으나 정귀녀 할머니도 옛날에 집안일이 많아서(1日 5끼 식사 준비, 의복 빨래, 청소 등) 일부자로 고생했다고 하였다.

현재 정귀녀씨 부부가 거주하는 집<도면 8>이다. 본래 1931년에 <도면 7>과 같은 집인데 1985년 안채가 무너져 사랑채를 개조하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안방의 난방은 구들장 위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안방 바닥은 1968년에 비닐장판자로 바꾸고 그보다 10년전 쯤에 천정과 벽에 벽지를 발랐다. 안방 조명도 60년대 중반에 전기불로 바뀌었다. 안방의 전



〈도면 7〉 정귀녀 할머니댁 평면도(1945)



〈도면 8〉 정귀녀 할머니댁 평면도 (호주 : 조건호, 1995)



〈사진 4〉 정귀녀 할머니 댁과 할머니(1995)

통가구는 없고, 현대 가구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 화장대, T.V세트, 옷걸이, 벽시계, 사진틀, 거울, 모기장, 요강이 있다. 〈사진 4〉는 정귀녀 할머니가 그녀의 집 앞에서 찍은 것이다.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1) 口述史를 청취한 老主婦들의 평균 연령은 72.4세, 평균 결혼 연령은 18.5세로 다수가 1942년 전후에 결혼하였고 평균 가족수는 7.17명으로 전국 군부 평균 가족수 5.25명보다 1.92명 더 많다. 특히 현재 이 지역의 평균 가족수보다 3명이 더 많았다. 노주부들의 학력은 대다수가 국문 해독 정도이다.

2) 口述史에 의한 옛 농가의 평면형태는 'ㄱ'자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ㄴ'자형으로 이 두가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초가 삼칸형도 약 30% 정도이며 안채의 평균은 5칸이 못되어 대단히 협소한 집이다. 약 50년 후인 현재 이 노주부들이 거주하는 집은 'ㄱ'자형이 대폭 증가하여 주거 생활이 호전되었다. 농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향상된 것이라고 본다.

3) 현재의 농가는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지만 옛 농가는 모두 초가지붕이었고, 다수가 방이 두개뿐인데 식구는 많아서 방 부족 현상이

심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방이 남아 도는 지경이다. 옛 농가에서는 흙붕당과 나무 마루가 반반씩으로 주거 조건이 좋지 않은 집이 많았으나 현재는 한 집을 제외하고 모두 나무 마루가 되었다.

4) 대다수 농가의 안방 바닥은 왕골자리였으며, 벽과 천정도 흙마감이 더 많았고, 모두 등잔불을 사용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현재 안방 바닥은 거의 다 비닐 장판이고, 벽지를 발라서 청소가 용이하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 현재의 조명은 거의 다 형광등이어서 밝게 살고 있다.

5) 옛 농가 안방에는 家具와 小品이 별로 없었는데 등잔과 요강만은 모든 집에 있었다. 반질그릇과 빗집도 없는 가구가 30%가 넘었으며 장과 농 중 한개가 있는 집이 30% 정도이며 그 이외는 의복 보관을 캐나 받다지, 함, 뒹대등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안방에 현대식 옷장과 이불장이 있으며 TV세트와 전화가 있어서 농가 생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6) 부엌의 조명도 주로 등잔불이었으며, 땀감은 모두 취사와 난방 겸용으로 뽕짚, 왕겨, 벼뿌리, 산나무, 고주박(나무뿌리)을 사용했는데 식량이 부족한 집에서 땀감도 부족하여 주부가 큰 고생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취사연료로 LPG를 쓰고 난방은 연탄, 기름보일러가 주

종을 이루며 약간은 이중 난방으로 나무와 연탄 보일러를 함께 써서 실용적이다.

7) 대다수의 옛 농가가 식량 걱정을 했으며, 절반이상이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극심한 고생을 하였다. 노주부들의 고생살이 중 첫째로 꼽힌 것이 배고픈 고생으로 보릿고개 넘기기가 어려웠으며 두번째가 물을 길어다 쓰는 문제, 세번째가 일이 고된 문제였다. 필자가 보기에 방이 모자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 방 문제는 다섯번째로 나타났다. 현재 농가에서 양식 걱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신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8) 口述史를 청취한 老主婦 23명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식량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한 점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집안일, 돌일이 많아서 고생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 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일을 많이 하고 또 굳은 결심으로 사신 분들이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단련이 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다수이다. 세번째 필자가 보기에 현재 노주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편리하게 살게 됐다."고 하신다. 즉 "편리하다" 혹은 "불편하다"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2. 提言

1) 口述史 채취지역을 경기도 이외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老主婦들의 옛 농가 생활을 조사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겠다.

2) 老主婦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분의 口述史를 함께 청취해서 남,여의 견해 차이를 비교 연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3)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례조사의 표본을 많이 하여 옛날 주택의 규모나 평면도 등을 老主婦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비교하여 그 자료를 남겨 놓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高道任, 「京畿道 傳統 農家の 住生活 研究」, 聖心女子大學校 出版部, 1994.
2. 강영환, "韓國 農村住居의 變化 과정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3(6), 1987.
3. ———,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4. ———, 「집의 사회사」, 웅진 출판, 1993.
5.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6. 金奉烈, "朝鮮後期 韓屋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7. 金聖雨·윤정숙, 「서울근교 農村實態 調査 보고서.1.2.3」, 연세대 주생활학과·건축공학과, 1988~1990.
8. 金聖雨·金素燕, "호남지방 전통주택에서의 규모와 평면형식", 건축역사 연구 2(2), 1993.
9. 金知民, "19세기 한국 南海 島嶼地域 民家の 유형적 체계", 건축역사연구 1(1), 1992.
10. 金鴻植, 「韓國 民家」, 제1,2권, 한실사, 1992.
11. 박경립, "전일적 世界觀으로 본 韓國 傳統 建築의 空間的 特性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6.
12. 박경옥, "農村改良 住宅의 平面構成 에 관한 研究"(I)(II), 생활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3), 4(1), 1987~1988.
13. 송민영, "안방에 대한 現代人의 意識 및 사용형태에 관한 研究", 연대 교육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4. 신영숙, "住居空間 사용 측면에서 본 家族間 상호교류 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5.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한국건축사대계 1, 동아문화사, 1975.
16. ———, 「韓國의 살림집」(上,下), 제3판, 悅話堂, 1989.
17. 유송용·박경립, "江原道 民家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117), 1984.
18. 유옥순, "韓國 農家 住宅의 부엌 空間 變化 要因에 관한 研究", 연대 주생활과 박사논문, 1988.
19.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 문화 인류학 25집, 1994.
20. 윤복자외, "韓國住居形態 變遷過程에서 본 住居學의 生態學的 概念定立", 대한가정학회

- 지, 28(3), 1990.
21. 윤정숙, 김성우, 최병숙, "서울근교 농촌주택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3), 1989.6.
 22. 李東樂, "農村住宅 室內 生活空間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8.
 23. 曹成基, "韓國「中部型」民家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7(3), 1991.
 24. 趙在順, "農村 家政生活 向上에 따른 住居空間에 관한 研究", 이대 석사학위논문, 1978.
 25.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제5판, 1987. 31.
 26. 최병숙, "서울 근교 農村住宅에 있어서 食事 및 炊事 空間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8.
 27. 崔 晙, "조선 중기 이후 남부 지방 증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28. 崔燦煥, "韓國의 農村과 都市 住居樣式의 比較研究", 연세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6.
 29. 洪亨沃, "韓國人의 住居調整 및 適應에 관한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6.
 30. ———, "조선 전반기 가족의 주거 조절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권, 1993.
 31. Allsopp, Bruce, *A Modern Theory of Architectu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Henley & Boston, 1977.
 32. Morris, E.W., & Winter, M.,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33. Naisbitt, John, & Aburdene, Patricia, *Megatrends 2000*, New York, Avon Books, 1990.
 34.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i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9.
 35. Robert B. Bechtel, *Behavior in the House : "A Cross cultural comparison sing behavior" setting methodology-* Low, Setha M, Chambers Erve, *Housing Culture and Design*,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75.
 36. Rudofsky, Bernard, *The Prodigious Builders*, Robert Anthony, Inc. N. Y., 1977.